

귀화 5개월... "한국 대표 여자 복싱선수 꿈 꾸요"

전국시도복싱대회 금메달 딴 브라질 출신 전남기술과학고 강예니 양
한국인 아빠·브라질 엄마 사이 출생... 15년간 브라질서 생활
올해 4월 국적 취득... 입문 4개월만에 여고부 -69kg급 우승

15년 정든 브라질을 떠나 전남에 터를 잡은 전남기술과학고 1년 강예니(여·17)양. 그가 최근 충남 청양에서 열린 제50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목에 건 금메달은 의미가 남달랐다. 강양은 이번 대회 여고부 -69kg급 결승에서 강수경(부산)에 3라운드 판정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강양은 "많이 떨렸지만, 나 자신을 믿고 싸워 우승할 수 있었다"며 "행복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브라질 국적 어머니와 한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강양은 지난해 1월 한국에 와 올해 4월 국적을 취득했다. 강양에게 목표가 있다. 강양은 이번 금메달을 받은 삼아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진학, 세계 무대에 서고 싶어한다. 전남기술과학고에 진학한 것도 그 포석이었다. 전남기술과학고는 임재,

박초롱 등 여자 복싱 국가대표를 다수 배출했다. 그는 "한체대에 무에타이 학과가 없어, 복싱 학과 진학을 목표로 삼았다"고 복싱에 입문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양이 복싱에 입문한 것은 지난 4월로, 4개월 여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따냈다. 브라질에서 3년 동안 배웠던 무에타이 실력이 배경이 됐다. 강양은 지난해 7월 광양에서 열린 광양시무술연합(킥복싱)회장배 전국신인 및 강자전 대회 국제전 부문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는 게 힘이 돼요. 메달을 딸 때마다 주변 지인분들에게 자랑하는데, 그 모습에 힘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강양은 원룡과 기숙사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낯선 언어로 학교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운동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는 날마다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나 운동장을 1시간여 뛰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있다. 교내에 복싱 관련 시설이 없어, 20여분을 걸어 화순 천사체육관을 찾아가 4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다. 강양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파트너'도 있다. 강양과 함께 전남기술과학고 복싱부 7명 중 두 명뿐인 여성 복서로, 이번 대회에서 -60kg급 금메달을 딴 김민진(여·17·2년)양이다. 그와는 기숙사 한 방을 쓰며 함께 운동하는 절친한 사이다. 김양은 "예니는 무에타이를 했던 경력이 있어 운동신경이 좋다. 복싱을 오래 해 온 선수들과 비교해도 체력이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양과 김양은 "우리가 오롯이 복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클러브부터 헤드기어, 마우스피스, 신발, 운동복, 시합복까지 전부 지원해줬다"며 "운동할 때 찾아와 음료수, 주말 식사비 등을 건네 준 학교와 감독 선생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강양은 "더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늘리고, 실력을 키워서 전남을 대표하는 훌륭한 복서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인이 된 조세대 '감성 공대생'

김승연 씨, 출판사 신인발굴 프로젝트 선정 시집 '나의 봄은...' 출간

조선대학교 공대생이 출판사 신인발굴 프로젝트에 선정돼 시집을 출간했다. 주인공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4학년 김승연 씨. 김씨는 올해 출판사 '꿈공작플러스'가 주관해 열린 신인발굴프로젝트에 발탁돼 최근 시집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를 출간했다. 김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활동을 하면서 작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대학에 진학할 즈음 노

래 가사는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시집 '나의 봄은 밤에 피었습니다'는 새벽 감성이 가득한 시집이다. 작가는 짝사랑이나 이별을 겪은 후, 여러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의 감정을 시집에 담았다. 지나보면 그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바로 빛나는 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밴드활동과 여행을 많이 하면서 문학적 감

성이 생길 것 같다"면서 "직접 겪은 첫사랑,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은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구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생이 시를 쓴다는 소리에 의아해하지만, 학과 공부도 하면서 시에 대한 애정도 키워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 시집 출간 후, 현재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획득을 위해 공부하는 중이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틈틈이 글을 쓰고 팔로워들과 소통한다. 김씨는 "시를 읽은 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취업공부 때문에 다음 시집을 출간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도 삶 속에서 깨달은 생각과 마음을 글로 계속 표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채희중 기자 chae@

범희승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대한갑상선학회 신임회장 선출

이서길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코로나 극복 '스테이 스트롱' 동참

화순전남대병원 범희승(핵의학과) 교수가 최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한갑상선학회 '2020 추계 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이며, 특히 내년 춘계 학술대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범 교수는 갑상선암 환자의 동위원소 치료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질환의 진단법 특허 등 관련질환 연구에도 힘써왔다. 범희승 교수는 현재 원자력의학원 이사장과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회의(약칭 ARCCNM) 의장으로도 활동중이다. 범희승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술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갑상선질환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서길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서길 회장은 "갑염병 예방과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역 전문건설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과 장호직 무등산생태오양병원 이사장을 지목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일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송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합의를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

- 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공용 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광주간호사회, 의료진 격려 아이스크림·간식 전달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빛고을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내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에 하절기 용품으로 아이스크림, 넥클러, 음료 등 간식을 전달하고 더위에 지친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사진> 광주시간호사회 이숙자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비상대책본부를 설치, 코로나 방역체계의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하여 지부차원에서 현장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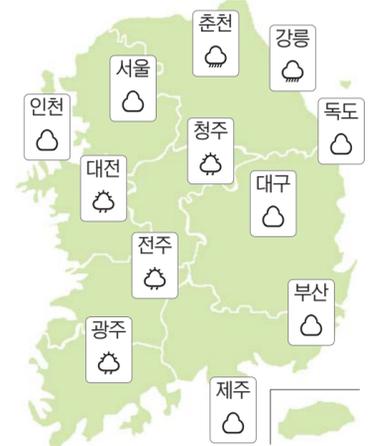
해돋이	06:04	달뜨기	18:41
해지기	19:01	달짐	03:43

우산 챙기세요

북대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소나기	25/32	보성	소나기	24/31
목포	흐림	25/32	순천	소나기	25/33
여수	흐림	26/31	영광	흐림	24/33
나주	소나기	24/32	진도	흐림	25/32
완도	흐림	25/32	전주	소나기	25/33
구례	소나기	24/33	군산	소나기	25/32
강진	흐림	24/32	남원	소나기	24/32
해남	흐림	24/33	흑산도	흐림	24/30
장성	소나기	24/3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북)	0.5~1.0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1.0~2.0
	면바다(서)	0.5~1.5	0.5~1.5
	면바다(동)	0.5~1.0	1.0~2.0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6:31	01:06
여수	18:26	13:03
	02:08	07:58
	13:59	20:41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위험	보통	좋음

◇주간 날씨

9/1(화)	2(수)	3(목)
☁	☁	☁
24/32	25/29	22/28
4(금)	5(토)	6(일)
☁	☁	☁
19/29	20/28	20/28